

## ■ 덕유산 남부 지부 약수터 2곳 준공가져

덕유산 남부 지부(지부장 姜宗熙)는 지난 6월18일 덕유산국립공원(경남 거창군 북사연 송계사계곡)에 200여만원을 들여 약수터 2개소(영천약수, 간천약수)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상욱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회원30여명이 참석하여 계곡정화활동및 자연보호행사도 가졌다.



약수터 준공식에 참석한 회원들

## ■ 덕유산 서부 지부 공원탐방 질서운동 전개

덕유산국립공원서부 지부(지부장 張永完)는 덕유산 집단시설지구내 유보지(임시야영장) 부근에 지난 90년부터 성수기를 틈타 각지에서 불량배들이 상인을 가장하여 탐방객을 상대로 물품을 부당한 요금으로 강매하고 욕설 및 폭력등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회원들은 7월10일 부터 8월20일까지 전경 및 청원경찰, 아르바이트학생등과 합동으로 자율방범대를 결성하여 불량배 및 잡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자연보호캠페인 및 공원정화운동을 실시하였다.



자율방범대 발대식 광경

## ■ 지리산 북부 지부 지부장에 金鍾燮회원 선출

지리산 북부 지구는 지난 5월31일 지리산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金鍾燮회원(제일한약방)을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백사골계곡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이날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 金鍾燮 ▲ 부지부장 : 魯相焮, 裴宗守  
▲ 운영위원 : 蘇鎭燮, 金注完, 李在得, 朴東鎬, 梁京植 ▲ 감사 : 金洪坤 ▲ 사무국장 : 李秉采

## ■ 한려해상 서부 지부 지부운영내규 제정 및 임원 개선

한려해상서부지부(지부장 姜昌旭)는 지난 4월29일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91년 결산및 지부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제3대 임원을 개선했다.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한려해상관리소장 : 남해군수 명순재 ▲ 지부장 : 강창욱 ▲ 부지부장 : 김인성 김두일 ▲ 운영위원 : 강천호, 김도원, 주영재, 김종길, 박화자 ▲ 감사 : 류형기 ▲ 사무국장 : 정용태

## ■ 소백산 남부 지부

### 6월26일 정기총회개최

소백산남부 지부(지부장 權商睦)는 6월26일 영주 민속회관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고문: 소백산 남부 관리소장: 崔鉉羽, 宋鍾博
- ▲ 지부장: 權商睦 ▲ 부지부장: 權寧祐, 金炳魯
- ▲ 운영위원: 金東榮, 裴勝煥, 宋和善, 全鉉珍, 鄭之玉
- ▲ 대의원: 姜信學

## ■ 五台山서부 지부

### 공원탐방질서 캠페인 및 계도순찰

오대산국립공원 서부 지부(지부장: 洪炯玉)는 지난 7월22일부터 8월20일까지 피서철을 맞아 오대산 국립공원관리의 협조책 일환으로 지부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정별로 10개조를 편성하여 탐방질서 캠페인 및 계도순찰을 실시하여 앞으로 공원관리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순찰을 통해 계곡에서의 무분별한 취사행위, 투망, 낚시행위 및 빨래, 목욕 등을 단속하고 공원내 오물 및 쓰레기 등을 치웠다.

한편 이들이 지적한 오대산 국립공원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탐방객들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형태

- ① 화목대신 가스렌지로 번모했을뿐 취사행위 근절 안되고,
- ② 그물(투망), 반두(죽대), 낚시, 어항 등 계곡 어족이 수난을 겪고,
- ③ 빨래, 설겅이, 목욕 등이 거리낌없이 행해지며,
- ④ 오물 투기행위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 무당들의 산신제 행위

- ① 계곡, 특히 기암괴석이 있는 곳이면 예외없이 산신제터 흔적 (소명골, 신선골, 조계골, 중부리 계곡 등)
- ②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천막 등 설치, 혹자는 장기간 기거
- ③ 방치되거나 은밀한 곳에 버려진 재물들(소, 돼지머리, 북어, 각종 과일 등)이 현장에서 썩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 ④ 바위에 얼룩진 그늘음, 좃농 등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

### ▲ 양봉가들의 장기 체류

- ① 벌통을 놓기 위해 터를 닦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자연훼손
- ② 봄 개화기부터 여름까지 장기간 체류하면서도 취사장, 화장실 등의 시설은 찾아볼 수 없음. (소명골입구, 사고지입고, 조계골, 회삿거리, 개자니, 소리골, 철천, 청도 등)

### ▲ 편의시설 부족(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등)

- ① 개자니, 소리골 입구 등 진고개 계곡은 많은 탐방객이 선호하는 곳인데도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② 편의시설이 전혀없는 곳의 노변주차장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자초하는 결과만 남김(진고개 계곡)

### ▲ 지역주민의 무관심

- ① 공원지역내 거주민(농민)들이 쓰고버린 농약병, 농약봉지는 밭가에 흩어진채 방치
- ② 공원내 민박촌 주변의 오염상태가 다른 곳보다 심한 편임.